

구례군, 목조주택 짓기 교육생 모집



구례군은 목재문화와 목재산업을 선도할 목공예 기능인 양성을 위해 오는 3월 3일까지 '목조주택 짓기' 교육생 12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3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반과 일요일반으로 나누어 각각 총 12회 72시간으로 구례목재문화체험장에서 이루어진다. 올해는 목재의 장점과 다양성으로 최근 주목받는 '목조주택'을 지켜보는

목공예기능인 교육생 내달 3일까지 12명 모집 '목조주택 짓기'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과정으로 기초구조부터 외부벽체 마감 칠 작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귀농귀촌을 꿈꾸며 구례군을 찾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들의 정착과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재밌고 알기 쉽게 교육내용을 구성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교육신청은 구례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구례군청 또는 지리산정원 홈페이지의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구례목재문화체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자연스러움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우수한 목재의 가치를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알리고 목재문화를 선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 중인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5명이 수료하였으며, 매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목재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능주면이 전라남도 주관 '2020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17일 오전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영록 지사(사진 왼쪽)가 양주형 능주면동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화순 능주면, 전남도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장려상 수상

주민 참여·소통 행정·지역 자원 연결한 꽃길 조성 호평

화순군 능주면이 전라남도 주관 '2020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서 장려상과 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다.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는 문화재·관광시설, 맞춤형 사회복지, 재난·재해 예방 등 대민 행정서비스의 현장행정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역할을 확장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능주면은 주민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능주면은 행정 기관, 주민, 지역 사회단체,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등 자치 역량을 키웠다. 주민 참여 행정을 활성화해 주민 참여·소통 행정 실현에 노력했다.

지역 공동체 협력,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사회복지 실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인권 사각지대 해소, 지역과 소통하는 훈훈한 공동체 조성,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재해 예방 등 역점 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자연·역사·문화·관광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한 꽃길을 조성해 탐방 코스를 개발해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특화 사업이 주목받았다.

능주면은 지난해 능주향교,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 유허비, 영벽정 등 지역 산재한 우수한 문화자원을 연결한 꽃길을 만들어 지역 관광·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민의 자부심과 '목사고을' 능주의 위상을 높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신혼·초보 주부 위한 비대면 밥상 교육 운영



나주시는 신혼부부, 초보 주부를 대상으로 산지 농산물을 활용한 '엄마의 밥상 만들기' 비대면 교육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가정식 레시피 제공을 위해 기획된 이번 교육은 사전 모집한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개강해 오는 3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생 20명 대상 '엄마의 밥상 만들기' 강좌 개강 제철 산지 농산물 활용, 13종 요리 레시피 전수

지난 해 전동향도음식강사 양성 과정 수료생을 강사로 초청, 산지 제철 식재료로 만든 봄동 굴전, 세발나물된장무침, 냉이술밥 등 13종의 영양 균형잡힌 한 끼 밥상 레시

피를 전수할 계획이다.

식재료는 밀키트(Meal Kit)형태로 진공 포장시켜 교육 전날 가정으로 직접 배부되며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이후 실습 내역을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홍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음식 장만이 서툰 신혼부부와 초보엄마들의 밥상 고민이 해소되

길 기대한다"며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요리 실습 교육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일자리통합지원센터, 경리사무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잡(job)아라 내 일(my job)!'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잡(job)아라 내 일(my job)! 직업교육과정 1기 경리사무원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경리사무원 양성과정은 구직자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체의 경리사무원 구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직업교육과정으로 PC를 활용한 전산실습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재무회계의 기본이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같은 회계 기초이론부터 전표관리 및 회계정보 조회, 수정 및 결산관리 등 전산회계 운용실무까지 회계 실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미취업 군민으로 3월 10일부터 4

월 2일까지(18일 간) 70시간에 걸쳐 운영되고, 수료 후 관내 기업체의 경리사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한 수강생 모집인원은 10명이며 이달 28일까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70시간으로 조정했다"며, "이번 양성과정과 더불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지행정 실무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061-381-921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체리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현장교육 과수특작팀 윤현석 팀장이 진행

곡성군은 지난 16일 체리 재배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리 재배 이

론교육 및 현장 전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에는 고품질 체리재배 기술 이론교육을, 오후에는 곡성군 관내 4개 농장에서 수형별 동계전정, 수세관리 등의 내용으로 현장교육을 과수특작팀 윤현석 팀장이 진행했다.

교육장을 찾은 유근기 군수는 "체리

의 국내 재배면적은 600ha 수준으로 향후 소비확장성을 감안하면 아직은 초기 도입단계다. 그런데 우리군 체리산업의 성공은 농업인의 재배역량에 달려 있다. 얼마 전 체리 열과문제 해결을 위한 간이 비가림시설 3종을 개발한 것처럼 전국 최고의 체리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